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안동 독립운동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단심가
수상내역	대학 일반 부문 최우수상
작가	권오단
소재	이만도, 이상룡
적용 콘텐츠	실경뮤지컬
기획의도	초대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삶을 통하여 경숙국치의 아픔을 되새기고 향산 이만도 선생과 안동지역 의병의충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단심가(丹心歌)

시놉시스

1910년 향산 이만도 선생은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24일동안 단식한 끝에 자정 순국 하신다.

단식을 하고 있던 임청각의 주인인 석주 이상용은 향산 이만도 선생의 장례에서 깨달음을 얻어 일생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한다.

이상용은 임청각을 팔아 독립운동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위패를 땅에 묻고 하인들의 종문서를 소각하고 형제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망명한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상용은 초대국무령으로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임시정부의 노선에 반발하는 이들과의 마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시간이 흘러 조선에 다녀온 아들이 향산 집안의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된다. 향산 이만도 선생의 아들이자 이상용에게 동서되는 이종업이 파리 장사사건으로 죽었다는 소식과 처제인 김락이 3.1운동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다가 두 눈을 잃고 괴롭게 살다가 죽었으며, 일제가 독립운동지사가 무수하게 나온 임청각의 지기를 끊기 위해 집 앞에 철길을 낸다는 말을 듣고 이상용은 쓰러지고 만다.

1막

무대 가운데 흰 상복을 입은 이상용, 머리를 풀어헤친 채 흐느끼고 있다.

이상용 - (한참을 흐느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한일병합이라니, 한일병합이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대한제국이 섬나라 왜놈들의 수중에 들어갔다니,
삼천리 금수강산이,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망국의 백성이 되다니……

이것이 정녕 현실이란 말인가.

(풀어헤친 머리를 감싸 안으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건 꿈일거야. 이건 꿈이 틀림없어.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신명이시여, 이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입니까?

(절규하며 세차게 머리를 흔들다가 털썩 주저앉는다.)

김씨부인 - (뛰어 들어와) 여보,, 큰일 났어요.

이상용 - 무슨 일인가?

김씨부인 - 향산 어르신께서, 향산 어르신께서…… (차마 말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이상용 - (깜짝 놀란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김씨부인의 팔을 잡고) 대체 향산 어르신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것이요?

김씨부인 - 20여일을 곡기를 끊으시고 단식하시더니 결국…….(울음을 터트린다)

이상용 - (하늘을 바라보며) 아! 향산 어르신께서 끝내 돌아가셨구나. 향산 어르신께서 끝내 돌아가셨어. (고개를 떨군다.)

김씨부인 - (울면서) 당신도 밤낮으로 곡기를 끊고 그렇게 슬퍼만 하고 계실건가요? 당신도 향산 어르신을 따라 가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상용 - (길게 한숨을 내 쉬며 고개를 떨군다.)

무대 어두워진다.

2막

상갓집 앞에 근조(謹弔)라는 등롱이 걸려있고 상복을 입은 사내들과 아낙들이 곡을 하고 있다. 이상용 무대 안으로 들어서자 아낙 하나가 다가간다.

김락 - (이상용에게 다가가) 형부.

이상용 - (김락의 손을 잡으며) 처제.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군. 뭐라 할 말이 없네.

김락 - (얼굴을 숙이며 흐느낀다)

이상용 힘없는 발걸음으로 김락과 함께 들어가 향산 이만도의 위패 앞에 멈추어 선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은 이상용, 이만도 선생의 위패에 큰 절을 두 번 한다. 상복을 입은 이중엽과 가족들 곡을 한다.

이상용 이중엽과 맞절은 하고 자리에 앉는다.

이상용 - 동서.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향산 어르신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다니……. 안동의 큰 인물이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애통하고 절통한 일이네.

이중엽 - 형님.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망국의 백성이 되었다면서 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시다니……(흐느낀다)

사람들 일제히 아이구 하고 통곡을 한다. 잠시 후, 통곡소리가 멈춘다.

이상용 - (이중엽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자네가 기운을 내야 하네.

이중엽 -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상용 - 며칠 전 향산 어르신을 찾아왔을 때 어르신께서는 내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 옛사람은 옛 시대의 방식으로 충의를 지키고 젊은 사람은 젊은 시대의 방식으로 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네.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가운데로 걸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아침에 망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도 향산 어르신처럼 곡기를 끊고 죽기만을 기다렸었네. 하지만 향산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네. 나는 젊은 시대의 방식으로 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네.

(이중엽을 돌아보며)

이보게 중엽이. 내가 죽는다고 망한 나라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망국으로 백성이

로 왜놈들의 발밑에서 천대받고 살아야 할 후손을 생각하면 죽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닐세. 반드시 살아서 이 나라를 왜놈들의 손아귀에서 빼앗는 것만이 사내대장부가 가야할 길이 아니겠는가. 향산 선생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네.

이중엽 - (자리에서 일어나며 감탄한다) 아!

이상용 - (이중엽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으며) 동서. 힘을 내게.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충의와 절개를 보여주는 것이 향산 어르신께 유지를 받드는 길이네.

이중엽 - 네. 형님. 형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어찌한 하늘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주먹을 불끈 쥐다.)

이상용 - 그러세. 우리 그리하세.

이상용과 이중엽, 격앙된 모습으로 두 손을 맞잡는다.

무대 어두워진다.

3막

집으로 돌아온 이상용을 부인 김씨가 맞는다.

김씨 - 장례는 잘 치르고 오셨어요?

이상용 - 응. 동서가 졸지에 고생이 많았지. 그보다 내가 부인에게 할 말이 있소.

김씨 -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상용 - (김씨부인의 손을 잡으며) 부인. 나라가 왜놈들에게 빼앗겨 우리는 하루아침에 망국의 백성이 되었소. 이는 모두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요. 나는 내 후손들과 백성들에게 망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을 테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전에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김씨 - 그럼, 결심을 하신 건가요?

이상용 -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소. 나는 이미 강화도 조약에 충격을 받고 척사위정 활동을 한 바 있고, 일제가 을미사변을 일으켰을 때 의병활동을 시작했소. 이제 나라가 병합되었으니 일본군이 나 같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소? 나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할 생각이요.

김씨 - 독립운동의 자금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세요?

이상용 - (굳은 결심을 한 듯) 임청각을 팔겠소.

김씨 - (놀란 얼굴로) 네? 지금 임청각을 파신다고 하셨습니다까?

이상용 - 그렇소.

김씨 - 나라를 되찾겠다는 서방님의 뜻은 잘 알겠으나 임청각은 고성 이씨의 대종가입니다. 이 집을 팔면 조상들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이상용 - 나라가 없어졌는데 집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요? 동서의 아버님이신 향산 어르신께서는 나라가 망한 것에 분노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소. 동서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한 하늘에서 살 수 없다고 이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할 것이라 하오. 나도 가만있을 수만은 없는 일 이 아니겠소?
(무대 가운데로 걸어가며)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바칠 생각이오. 나라를 잃은 것에 비하면 이 집을 파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 조상께 미안한 일이지만 또한 이 나라를 찾는 일에 사용한다면 조상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오. 그러니 부인도 내 뜻을 이해해 주시오.

김씨부인 - 서방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용 - (부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고맙소. 내 뜻을 이해해 줘서 고맙소.

두 사람 포옹하며 무대 어두워진다.

4막

임청각에서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이상용과 여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상용 - (큰절을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세차모월모일 종손 이상용은 조상께 고합니다. 경술년 8월 22일 대한제국이 왜적의 간교한 술책에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창졸간에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나라 잃은 망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선조들을 뵈올 낮이 없습니다. 하여 저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임청각을 처분하고 중국으로 망명 하여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칠 생각입니다. 나라를 되찾는 것은 대의요, 집안을 이끌고 조상을 모시는 일은 소의라. 대의를 위해 부득이 조상님을 저버리오니 불초한 후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상용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위에 있는 신주를 모두 회수하여 무대 아래에 묻는다.

친척 1 - 조상의 신주를 땅에 묻는 불효가 어디 있는가?

친척 2 - (삿대질을 하며) 자네는 고성 이씨의 종손일세. 어찌 고개를 들고 다니려고 선조의 위패를 땅에 묻으려는 것인가?

이상용 - (격앙된 목소리로) 나라가 없는데 어찌 하늘을 우러러 조상을 돌볼 수 있단 말입니까? 구천에 계신 선조께서도 제 뜻을 이해하실 것이니 더 이상 저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제 불효는 후일 나라를 되찾은 후에 치르겠습니다. (신주를 묻는다)

이상용 - (신주를 묻은 후 둘러선 사람들을 바라보며) 노복들은 모이거라.

여종들과 남자종들 무대로 모여든다.

이상용 - (목함에서 서류뭉치를 꺼내든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러니 이 집을 나가서라도 자유롭게 잘 살아가기 바란다. (종문서를 소각한다)

여종과 남자 종들이 울면서 큰절을 하고 물러난다.

무대에는 몇 명의 사람(가족들) 만이 남는다. 무대위에서 눈송이가 떨어진다. 사람들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본다. 이상용 손을 펼쳐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무대 앞으로 걸어 온다.

이상용 - (비장하게 시 한수를 읽다)

삭풍은 칼보다 날카로와
나의 살을 에이는데
살은 깎이어도 참을 수 있고
창자는 끓어져도 차라리 슬프지
이미 내 밭과 집을 빼앗고
또다시 내 처자를 넘겨다보니
차라리 내 머리 잘릴지언정
어찌 무릎 꿇어 종이 될까보냐

사람들 이상용의 시를 듣고 숙역하게 고개를 숙인다. 하늘을 응시하던 이상용 천천히 고개를 든다.

이상용 - 나는 이제 중국으로 가려한다.

사내 1 - (손을 번쩍 들며) 형님, 저희도 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형님의 독립운동을 돕겠습니다.

이준화 - 아버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사내 2 - 삼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내 3 - 망국의 백성으로 설움당하며 사느니. 나도 자네와 함께 독립운동에 몸 바치겠네.

친척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상용을 따르겠다고 한다.

이상용 - (그들을 바라보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좋습니다. 모두 함께 가십시오. 가서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모두 이상용에게 안긴다. 무대 어두워진다.

5막

임시정부의 현판이 크게 내 걸려 있다. 무대 안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있다. 무대 가운데 의장석이 있다.

사내 1 - 이상용 선생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국무령으로 임명함을 선언합니다. (망치로 세 번 친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상용, 의장석에 올라온다.

이상용 - (사람들을 둘러보며) 1911년, 쉰셋의 나이로 만주로 망명한 이래로 15년의 시간이 삶과 같이 흘렀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손에 들어간 것도 15년의 시간이 흘렀군요.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그동안 일제는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고 우리의 자원을 약탈해 왔습니다. 망국의 백성으로 일제에게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집니다.

무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대한제국이 힘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키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용왕매진한다면 언젠가 조선의 독립이 찾아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두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추천할까 합니다.

(손을 들어) 김좌진 장군. 나오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건장한 사내 걸어 나와 이상용의 옆에 선다.

(손을 들어) 김동삼 장군, 나오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건장한 사내 걸어와 이상용의 옆에 선다.

이상용 - 여러분. 제 소원은 이 땅의 자주독립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전투의 승장이며, 김동삼은 조선의 독립군들에게 군자금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두 사람을 국무위원에 추천한 것은 우리의 독립을 우리가 쟁취해야겠다는 열망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힘이 없다면 독립이 되었다라든가 또 다시 외세에 나라를 빼앗길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일제를 쳐부수고 자주독립을 이룩합시다.

사람들 박수를 친다.

사내 4 - (손을 들고) 국무령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용 - 이야기해보시오.

사내 4 - 국무령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주독립을 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일본의 세는 날로 커 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들만의 힘으로 일제를 무찌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상용 - 내 말은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यो.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어부지리로 독립을 쟁취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우리는 그들의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시 경술국치의 치욕을 겪게 될 것이 아니겠소.

사내 4 - 저희들은 국무령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방식대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니다.

이상용 - 대체 어찌할 생각이란 말ियो?

사내 4 - 저희는 외세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옛날 임진왜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중국의 힘을 빌려 국난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용 - 당시에든 의병과 관군이 없었다면 국난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요. 그대는 당파싸움이 나라를 망치고 외세를 불러왔다는 교훈을 잊었던 말ियो? 국론이 분열되면 독립의 길은 더욱 요원해지고 말 것이요. 지금은 모두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오.

사내 4 -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힘을 합칠 생각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사내 4, 이상용에게 인사를 하곤 다른 이들을 끌고 나가버린다.)

이상용 - (실망한 얼굴로 무대를 나가는 사람을 바라본다.)

무대 어두워진다.

6막

무대에 이상용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있다. 백발이 된 이상용 무대 가운데 서 있다. 무대 안으로 한 사내(이상용의 아들 - 이준화)가 힘없이 들어온다.

이상용 - 준화야. 안동에 다녀온다더니 벌써 다녀온 것이냐?

이준화 - 예. 아버님.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린다)

이상용 -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다 큰 녀석은 눈물을 왜 흘려? 혹, 안동에 큰 변고라도 있던게냐?

이준화 - (눈물을 흘리며) 집안에 변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용 -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어서 말해보거라.

이준화 - (무대 앞으로 나서며) 아버님. 일제가 임청각 앞에 철도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상용 - 뭐라고?

이준화 - 사람들 말고 아버님과 같은 독립운동지사들이 나오는 것을 저어하여 지맥을 끊기 위해 일부러 저희 집 앞에 철도를 놓는다고 하더군요.

이상용 - (화를 내며) 이런 죽일 놈들. 우리 민족의 정기를 쇠하게 하기위해 산천에 쇠막독을 박는 것도 모자라 철도공사를 핑계로 맥을 끊으려 하다니……. 친척 식구들은 잘 있더냐?

이준화 - (침울하게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큰일이 많았지요.

이상용 - 큰일이라면?

이준화 - 이모부(이중업)께서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사하셨고, 설상가상으로 이모님은 3·1운동에 연루되어 왜놈들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두 눈을 잃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군요.

이상용 - 뭐라고? 동서가 죽고 처제(김탁)가 모두 죽었던 말인가?

이준화 - 네. 동흙이와 중흙 형제가 군자금을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왜놈들이 버르고 있었는데 3.1운

동에 가담한 이모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모은 군자금도 나석주(羅錫疇) 열사의 동양척식회사 폭탄 투척에 이용되었다더군요. 동흡이와 종흡이는 왜놈들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향산 어르신은 독립운동으로 인해 멸문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용 - 아! 동서도, 처제도 모두 향산 선생님을 따라 가시고 말았구나.

(탄식하며 일어나 비틀거리며 걷다가 무대 가운데에서 멈춘다.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신명이시여. 의로운 자를 망하게 하시고, 불의한 자를 흥하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까? 악이 바름을 이기고 바름이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까?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제가 배웠던 천지간의 도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정녕 이 나라를 버리시나이까? 정녕 이 나라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다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진다)

이준화 - 아버지 (쓰러진 이상용을 안는다.)

독립운동가들 이상용의 주위에 몰려들어 무릎을 꿇는다.

이준화 - 아버지. 아버지.

이상용 - (감았던 눈을 힘없이 뜨며) 아! 남아일생. 허무하구나.

이준화 -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용 -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이 땅에 건너와 독립운동을 한 지도 20여년. 온 생을 나라의 독립에 바쳤지만 해 놓은 것이 하나 없이 나이만 먹었구나. 내 나이 일흔 다섯, 나도 이제 그들을 따라 갈 때가 되었어. (가슴을 움켜잡는다.)

이준화 - 아버님. 힘을 내십시오. 아직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상용 -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숨을 헐떡인다)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평생을 독립을 위해 살았건만, 내 생애에 이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보 고자 했던만 부질없는 일이 되었구나. 내 죽어, 망국의 귀신이 되어 어디로 간단 말이나? 조상님을 뵈기 부끄럽구나. 저 세상에 있을 향산 어르신도, 동서도, 처제도, 부인도 보기 부끄럽구나.

(이준화의 손을 잡으며)

준화야. 내가 죽거든 내 유골이랑 조선 땅에 가져가지 마라. 조선 땅이 해방되기 전에는 데려갈 생각을 마라. 조선이 독립되면, 조선이 독립되면, 그 그 때에 내 유골을 유지에 싸서 조상의 밭치에 묻 어 다오. (숨을 거둔다)

이준화 - 아버님 (이상용을 껴안고 흐느낀다)

사람들 이상용의 주위에서 흐느낀다.

무대 어두워진다.

7막

약간 어두침침한 무대. 이상용은 무대를 정신없는 사람처럼 서성거린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상용의 주위에 몇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다. 점점 무대 밝아진다.

이상용 - (눈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란다.) 아니, 이게 누구야? 동서 아니야? (반갑게 다가간다)

이중엽 - 형님 (웃으며 이상용의 손을 잡는다.)

이상용 - (이번에는 옆에 있는 아낙—김락—을 보고 놀라며) 어? 처제 아닌가? (반갑게 아낙의 손을 잡으며) 맹인이 되었다더니 괜찮은가?

김락 - (빙그레 웃으며) 형부도 참. 저는 괜찮아요. 누이도 만나보셔야지요.(김락이 손가락으로 아낙—
김씨부인—을 가리킨다)

김씨부인 - 여보.

이상용 - 어, 당신도 여기 있었구려. (부인의 손을 잡고 이중엽과 김락에게 말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
이야? 모두 신수가 좋아 보이는군. 정말 좋아 보여. (밝게 웃는다)

이중엽 - 형님, 아버님께 인사 안드리실 겁니까?

이상용 - 아버님? (이중엽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란다. 그곳에 향산 이만도 선생 서 있다)

이상용 - 향산 어르신. (재빨리 다가가 향산 선생께 큰 절을 올린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어르신을 뵈 댓습니다.

향산 이만도 - (이상용의 손을 잡으며) 수고 많았네.

이상용 - 아닙니다. 아무 한 일도 없이 텅텅이 살다가 왔습니다.

향산 이만도 - (손을 저으며) 아닐세. 자네는 거름을 뿌리고 씨를 일군 사람일세.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네. 그만하면 잘 산거야. 맹자께서 말씀하셨지.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일을 맡길 때에 먼저 그 몸을 고단하게 하고 그 정신을 고단하게 한다고 말이네. 조선은 하늘이

부여한 시련을 맞고 있는 것이네.

이상용 - 그게 정말입니까?

향산 이만도 - 오늘 우리가 뿌린 씨앗이 훗날 풍성한 열매로 맺힐 지니. 보게나.(무대를 가리킨다.)

(갑자기 무대위로 사람들 손에 손에 태극기 들고 뛰어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친다.)

이상용 - (놀란 듯)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대한독립만세라니요?
(두 눈을 비빈다)

향산 이만도 - 일제가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마침내 패망하고 만 것이지. 대한제국은 독립되었네.

이상용 - 아!

향산 이만도 - (하늘을 바라보며) 천도의 순환이란 이러한 것이네. 어둠이 가면 해가 뜨는 것처럼, 의가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마는 것이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상용 -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너무 기쁜 나머지 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사이로 뛰어 들어가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친다. 이 중엽과 김락. 김씨 부인도 함께 독립만세를 외친다.)

잠시 후, 사람들 물러가고 이상용 일행만 남는다.

무대 다시 어두워진다.

이중엽 - (이상용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형님.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일제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이상용 - 그렇지? 우리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는다.)

향산 이만도 - 자. 이제는 갈 시간이 되었네. 우리 함께 가세. 이제 그만 훨훨 털고 가세나.

이상용 - 네. 이제 저는 모든 근심걱정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손을 잡는다. 이때, 어디선가 아리랑 노래 울려 퍼진다.

이상용 - 이 노래. 아리랑이 아닙니까?

김락 - 맞아요. 아리랑이네요. (노래를 따라 부른다.)

모두가 아리랑 노래를 따라 부른다.

노래가 끝이 나며 무대 서서히 어두워진다.

(끝)